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웨비나 안내]

- 웨비나: 글로벌 마켓과 경제 전망 by JP Morgan

####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미 일자리 급등... 30만 3천개
- CNBC: 미네소타 은행 총재의 “올해 금리 인하 없다”에 골드만삭스 수긍 안 해
- CNBC: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만든 자유무역의 결함은 문제 있다”

#### [미국 금융]

- WSJ: 강력한 일자리 지표로 미 국채 수익률 상승

#### [오일]

- WSJ: 유가 수개월 만에 최고치.. 올여름 휘발유값 우려돼
- Yahoo Finance: 재선 출마 바이든, 유가 상승에 대응 고심

#### [미중 관계]

- NYT: 엘런 미재무장관, 중국의 값싼 그린 에너지 수출에 불만 표명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국인들, 심각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여행 및 엔터에 과소비
- WSJ: 삼성, 반도체 중심지로 텍사스주에 집중 투자
- WSJ: 존슨앤존슨, 1백30억불에 Shockwave Medical 인수
- Bloomberg: 테슬라, SUV 재고 누적으로 가격 대폭 인하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웨비나 안내]

#### 웨비나: 글로벌 마켓과 경제 전망

- Tuesday, April 16 | 9:00 a.m. ET

##### Featured guest speakers



**Joseph Lupton**  
Senior Global Economist,  
J.P. Morgan



**Jay Barry**  
Co-Head of US Rates  
Strategy, J.P. Morgan



**Steve Dulake**  
Global Head of Credit,  
Securitized Products and  
Public Finance Research,  
J.P. Morgan



**Luis Oganés**  
Head of Global Macro  
Research, J.P. Morgan



**Dubravko Lakos-Bujas**  
Chief Global Equity  
Strategist, J.P. Morgan

##### Moderator



**Joyce Chang**  
Chair of Global Research,  
J.P. Morgan

To access the livestream link, please click [here on April 16 at 9:00 a.m. ET.](#)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Jobs Roar Again as Payrolls Jump 303,000, Unemployment Drops 3월 미 일자리 급등... 30만 3천개

- 3월 미 민간 일자리 증가 숫자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실업률은 떨어졌다. 노동시장이 경제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 1월과 2월의 일자리가 합해서 2만2천개 상향 조정된 이후에 지난달 비농가 부분의 일자리가 30만3천개 증가했다고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이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숫자.
- 실업률은 3.8%로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참가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 3월 일자리 증가는 헬스케어, 건축, 레저, 환대 산업 등이 주도했다.

Bloomberg 기사

### CNBC: Fed's Kashkari raises prospect of zero rate cuts — but Goldman says that would be 'very surprising' 미네소타 은행 총재의 “올해 금리 인하 없다”에 골드만삭스 수긍 안 해

- 미네소타 연방은행 총재인 Neel Kashkari는 인플레이가 계속 고착될 경우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발언 이후에 골드만삭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an Hatzius는 “나는 올해 여전히 연준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그는 금요일 CNBC에 나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 CNBC: Free trade flaws fueled Trump's rise in 2016 — and the problems remain, top economist says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만든 자유무역의 결함은 문제 있다”

- 공화당 주자인 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수입품에 10% 관세,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은 60% 이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노무라 연구소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Richard Koo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문제가 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에 따르면 자유무역에는 반드시 승자와 적자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무역적자로 패자의 숫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WSJ: Strong Jobs Data Drives Up Treasury Yields** 강력한 일자리 지표로 미 국채 수익률 상승

- 오늘 아침 미국의 일자리가 크게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 국채 장단기물 모두 상승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강한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다.
- 2년물은 일자리 발표전 4.655%에서 발표 직후에 4.721%로 상승했다. 10년물은 발표전 4.320%에서 직후 4.394%로 상승했다.

WSJ 기사

## [오일]

### **WSJ: Oil Is Hitting Its Highest Level in Months—Just in Time for Summer Driving Season** 유가 수개월 만에 최고치.. 올여름 휘발유값 우려돼

- 러시아에서의 드론 공격, 중동 지역의 불안, 그리고 소비자 수요 증가로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여름철에 휘발유 가격 상승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 이번 주 유가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이스라엘의 이란 외교부 건물 공습으로 지역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
- 브렌트유 선물은 2024년에 18% 상승하여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 이는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AAA가 측정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 상승하여 갤런당 3.57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 **Yahoo Finance: Biden is getting antsy about rising gas prices** 재선 출마 바이든, 유가 상승에 대응 고심

- 올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약재이다.

- 바이든은 2022년 유가 폭등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유가 및 기타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
- 2023년에 유가가 조정되는 듯 보였지만, 1월 초 갤런당 3.20달러에서 현재 약 3.60달러로 다시 상승 중이다.
- 바이든은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를 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에너지부는 미 전략 비축유를 위한 두 건의 주요 석유 구매를 취소했다.

Yahoo Finance 기사

### [미중 관계]

#### **NYT: Yellen Faces Diplomatic Test in Urging China to Curb Green Energy Exports**

##### **옐런 미재무장관, 중국의 값싼 그린 에너지 수출에 불만 표명**

-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재무부장은 중국의 값싼 그린 에너지 기술 수출 정책이 미국이 개발시키려고 하는 전기차와 태양열 부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 같은 메시지는 옐런 장관 입장에서 경제 외교에 도전을 주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수조달러의 보조금으로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진작 시키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산업정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이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NY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Americans are still splurging on travel and entertainment — even as credit card debt tops \$1 trillion**

##### **미국인들, 심각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여행 및 엔터에 과소비**

-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1조1천3백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충동구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doom spending(파멸적 소비)”라고 불리는 것으로, 경제 및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하는 행태를 뜻한다.
- Bankra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약 38%가 내년에 여행, 외식, 라이브 공연 관람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빚질 계획이다.
- 또한, 조사 대상자의 27%는 올해 여행을 위해 빚을 낼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14%는 외식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13%는 신용카드

드에 의존하여 극장 관람, 라이브 스포츠 경기 관람, 콘서트 참석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CNBC 기사

### WSJ: Samsung Doubles Down on Texas as U.S. Chip Epicenter

#### 삼성, 반도체 중심지로 텍사스주에 집중 투자

-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약 44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삼성의 신규 투자는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테일러에 집중될 예정이다. 삼성은 해당 장소에 새로운 반도체 허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기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 삼성은 인텔, TSMC와 함께 인공지능 및 국방력에 필수적인 첨단 로직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세 기업 중 하나이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칩 제조 능력을 높이고 중국의 기술 영향력을 낮추려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 WSJ 기사

### WSJ: Johnson & Johnson to Buy Shockwave Medical in \$13.1 Billion Deal

#### 존슨앤존슨, 1백30억불에 Shockwave Medical 인수

- 존슨앤존슨사는 심장병 치료 회사인 Shockwave Medical을 1백31억불에 인수해 심장병 치료 기기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Shockwave Medical사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회사로, 카테테르를 통해 음향 에너지를 보내 심장병 질환 환자의 동맥에 쌓인 칼슘을 분해하는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신장 결석 치료에서 파행됐는데 동맥의 스텐트를 쉽게 이식하는데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 WSJ 기사

### Bloomberg: Tesla Offers Steep Discounts on SUVs Piling Up in Inventory

#### 테슬라, SUV 재고 누적으로 가격 대폭 인하

- 테슬라가 사상 최대인 차량 재고 소진을 위해 베스트 셀러 차량들의 가격을 인하한다.
- 테슬라는 재고로 보유 중인 Model Y 스포츠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고, 후륜 구동 버전은 맞춤 주문보다 4천6백달러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장거리 및 고성능 Model Y는 최소 5천달러 할인된다.

- 테슬라는 1분기에 4만6천5백61대의 역대 최고 재고를 남겼다. 기업 측은 판매 감소의 원인을 캘리포니아 공장의 Model 3 세단 생산의 변경과 독일 공장 폐쇄로 지적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 연준 '매파' 위원 "인플레 고착시 연내 금리인하 불필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1~2월 물가지표 약간 우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저소득층에 인플레 너무 높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위원이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4일(현지시간) 투자전문지 '연금과 투자'(P&I) 주최 온라인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앞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둔화세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을 써냈다고 밝혔다. 전체 연준 위원 전망치의 중간값은 3회 인하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